THE HERALD of Christian Science
informal translations from the publications of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플라시보는 미스터리가 아니다

Placebos aren't a mystery

Christian Science Sentinel, October 5, 2009 Tom Black

요즘 플라시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관하여 촛점을 둔 최근 두개의 기사가 있었다.

플라시보란 아무런 의학적인 가치가 없는 설탕알 같은 불활성 물질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의약등의 다른 물질들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조 실험에 특히 사용된다.

2009 년 8 월 24 일자 Wired 지에 "플라시보의 효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한다." 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http://www.wired.com/medtech/drugs/magazine/17-09/ff_placebo_effect?currentPage=all)

이 기사는 이제껏 열성적으로 권장되어 온 신개발된 제약품이 플라시보 효과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판정됨에 따라 그것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이다.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가짜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환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는 사실, 즉, 플라시보 효과는 의약학에 신중히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당혹스러운 사실로 여겨져 왔다.

두번째의 기사는 마이클 매스닉이라는 저자가 쓴 글로 "플라시보 효과: 제약회사들이 대중으로 부터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 이라는 제목으로 2009 년 9 월 3 일자 Techdirt 라는 잡지에 발행되었다. 이 기사는, 플라시보 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업체들이 플라시보 연구결과의 중요한 데이타를 대중으로 부터 감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발견자 메리 베이커 여사도 비슷한 문제와 씨름을 하였다. 이것이 여사의 시초의 실험의 주제였다. 여사가 마음의 과학을 발견하기 이전 얼마 동안 그녀는 호메오파시 (동종(同種)[유사] 요법- 건강체에 쓰면 치료 대상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약물을 환자에게 조금씩 주어 치료하는 방법)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요즘도 의술의 일부로 쓰여지고 있다.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극도로 희석, 감쇠시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코닛 (바곳의 뿌리에서 추출한 진통제) 을 아코닛의 정체를 잃을 정도가 될 때까지 희석을 한 후에 그 무해한 액체의 한 방울을 물 한 컵에 떨어 뜨린 후 이것의 한 티스푼을 매 30 분마다 환자에게 줌으로 초기의 열병으로 부터 회복시켰다. 최고의 감쇠는 아코닛을 아예 넣지 않고 유당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희석액을 사용해서 만성 수종증도 치유했다. (Christian Healing, p13).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language],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Translation © 2009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5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인하여 에디 여사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여사는, 치유는, 농도가 높던 낮던, 약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치유는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들,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 의해 심겨진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제약업자들의 기본적인 오류는 소위 화학의 법칙이 몸을 조정한다고 가정한 것에 있다. 외면상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어떤 더 깊은 영향이 사람의 체계에 작용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가 널리 이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감추어 질 수 없으며, 실지로 의학계 자체가 성실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은 해답을 추구하고 있다.

에디여사도 역시 더 깊은 해답을 추구하였다. 여사의 실험과 통찰력이 마침내 여사로 하여금 여사가 이름 진 '필멸의 마음', 즉, 오감의 선언에 바탕을 둔 확신이 사람을 일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느낌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속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잠언 23:7)" 라고 했다.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치유자 그리스도 예수는 이 조정에 관하여 간단한 우화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 3 장 27 절) 하셨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필멸의 마음, 즉 우리를 조정하는 의식을 묶어 매고 통치해야 그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화학물질이나 그 법칙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 역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이 필멸의 마음, 인간의 생각을 통치하여 질병을 막고 치유하는 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류에게 그야 말로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는 인류의 질병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법이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하나님**, 신성의 **마음**, 이 실제로 사람을 통치하며, 어떤 경우라도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 신성의 **마음**만이 사람을 돌보아 준다라는 것을 알려 준다.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극진한 사랑의 창조작으로 제시하며, 사람에 관한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내게", "나", 나 자신" 등으로 일컬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이러한 모든 심오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깊은 의미도 설명한다. 에디 여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결과로, 모든 형태의 투약을 포기하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라고 그녀가 일컫는 영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위에서 인용된 호메오파시에 관한 그녀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이와 같은 실험들을 한 후에 우리가 허구적인 의학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정직하게 **마음** 만을 치유의 원칙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누구도 놀랄 수는 없을 것이다 (Christian Healing p.13).

이러한 발견은 반발도 초래시켰다. 성경을 신실히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심한 질투와

Translation © 2009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5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심지어는 적의를 유발시켰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체성 안에서 이러한 애석한 반응들을 극복하셨으며,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자들은 그 분의 가르침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발견한다. 그 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악의로 이용하는 자 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누가 복음 6 장 27, 28 절) 라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불쾌한 문제들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널리 인식되게 되었고,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기사들에 꺼지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 즉, 왜 플라시보 효과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류의 인간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영향 요인을 알아 내기는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하나의 영향 요인은 의약이 인류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는 것으로 널리 받아 들여진 가정이다. 이 가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다. 이는, 뉴스 보도, 개인적인 경험, 의사들에 의해 폭로된 기사, 그리고 제약업자, 심지어 극히 존경받는 의사들과, 학술적 연구실들의 결탁 등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화학물질을 기초로 한 의약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감소되고, 무약 치료에 대한 대중의 본질적인 신뢰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공통적인 사고에 거대한 각성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관측한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가르치듯이, 지극하게 보살피는, 그러면서도 강대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좀 더 영적인 감각의 영향력 아래서, 인류는 보건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영적인 치유에 대한 자연스런 신뢰에 대해 깨어나고 있다. 플라시보 효과에 관한 확장된 관심이 이러한 움직임을 증거한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기도와 치료를 통한 치유의 모든 실증이 고요하고 성실하게 인류의 염원과 필연적인 각성을 뒷받쳐 준다.

무의미한 치유는 없다. 그 하나 하나가 세상의 질투적인 저항을 꾀뚫어, 역세기를 통하여 꾸준히 진보하는 **사랑**의 누룩을 통하여 인류의 가슴에 직접적으로 말한다.

Translation © 2009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5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